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8. 26.(수)

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아직 정해진 바 없음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26. 이데일리는 「미국형 원전 고집에 韓 난색...」 기사에서,
 -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원전사업의 노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
 - 미국 노형(AP1000)을 따를 경우, 한국이 막대한 건설·금융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한수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으며,
 - 양측의 이해충돌을 풀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

< 산업부 입장 >

- 한·미 양국은 대미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,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
 - 한·미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환준 (044-203-5336)